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여래수랑품 제16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천대 대사는 <법화경> 28품을 둘로 나누어 전반 14품을 적문의 가르침, 후반 14품을 본문의 가르침이라 분류했다. 즉 전반은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여신 '사(舍)의 석존'의 설법이며 후반은 '수랑품'에서 나타내 보이는 '이(伊)의 석존'의 설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랑품' 이후는 인간 석존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설법한다는 법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깨달은 석존이 진리의 몸으로 설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본문·적문의 석존' 혹은 '법신·응신의 석존'이라고 한다면 역사상의 석존과 진리인 석존으로 2분화되어 마치 순위가 정해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 2분화의 인상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이다. 여행에서 병든 아들 곁으로 돌아와 악을 만들고 다시 여행길에 나서서 "죽었다"고 전했던 석존은 적문의 석존이며, 아들이 완쾌한 후 귀국한 석존은 본문의 석존이다.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참으로는 죽은 것이 아

다는 것이니 바꾸어 말해서 깨달음을 얻음, 즉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다.

<법화경> '수랑품'에서 말하는 구원의 생명이란 요컨대 법진리를 말한다. 법·진리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므로 "법(佛)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여래수랑품'이라는 말이 바로 '무량수품'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한 말이다. 그리하여 이 본문의 부처님인 법신본은 수명이 한량없어 "때로는 다른 부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므로 그 이름이 같지 않고 세상에 머무는 시간도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반야(般若)의 공(空) 사상, 즉 법공(法空)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법신본은 이름이 없다. 흔히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이 법신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비로자나불도 보신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득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해 마치고 성불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보신본인 것이다. 왜냐하면 법신본인 비로자나불과 보신본인 노사나불은 동일한 이름의 바이로자나를 음역한 말이



◇일우스님은 모든 일상이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셨다.

보현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대웅전 앞으로 몇 백년 됐을지 모르나 아름다우나 자리 잡고 있고, 뒤로는 통일약사여래 대불과 옥으로 조성한 천불이 청도읍내를 굽어보고 있었다. 전통사찰답게 고풍스런 분위기가 물씬 났다.

한 신도의 안내로 일우스님이 거처하는 고불당(古佛堂)에 들어서자, 스님과 얘기를 나누던 신도들이 자리를 양보했다. 지난 8월말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 의장에 추대된 일우스님. 180cm쯤 돼 보이는 큰 키에 다소 마른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이 칙칙한데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강한 인상과는 달리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고 친절하셨다. 누구에게든 스님의 방문은 열려 있고, 이날도 스님과 신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면 말을 꺼냈다.

"산천초목과 산하대지 불법인연 아닌 것이 없는 데, 굳이 내게 무엇을 물으려 하시는가. 무정설법이 진실로 불법이니 나는 할 말이 없다. 유정(有情)으로 나누는 것이 어디 불법이던가. 자네들이 부처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구하려는가."

"원로회의 의장이 되셨으니 더 바쁘시겠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지요?"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 되면 일하고 그렇게 감투하나 썼다고 근본이 달라질 수가 없다. 화경정정(和敬淸淨)하면 그만이지. 자연과 시비하지 않고 만물을 공경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 명심(銘心)이야."

스님은 하루 3~4시간은 일을 하신다. 지계를 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발을 일구고 농약을 치는 일까지도 모두 손수 하신다. 1950년 보현사 주지를 맡은 이후로 줄곧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웬만한 일꾼도 스님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신도들은 전했다. 이날도 스님은 오전에 감나무에서 감

을 따는 일을 직접 하셨다고 한다. 이토록 일에 매달려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자연은 거짓이 없지. 자연과 대화하면 그 위대함과 솔직함에 고개가 숙여져. 참선을 하고 경전공부를 해야만 불법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틀린 거야. 무엇을 하든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요,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일일 뿐이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멀리서 구하려고 하니 무엇을 얻겠는가?"

스님의 일상은 늘 이렇게 노동으로 채워진다. 새벽 3시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참선과 독경, 그리고 신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발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배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스님은 시대흐름과 불교계의 흐름을 알아야만 신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불교계 신문과 일간신문을 꼼꼼히 챙기신다.

스님은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셨다. 그런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우연이



불법은 몸과 녹아야 참다



가까이서 뵈

일우스님 (태)

"큰스님 보러 가시는 길이요?"
청도 역에서 택시를 타고 보현사로 가지고 갔더니 운전기사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운전기사는 빙그레 웃으며 "참 훌륭한 분이시죠" 했다. 말

경전·참선공

아 형이 왜 스님이 됐는지 이해가 됐고,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만약 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출가를 했을 게야. 인제가 됐든 불법을 만났을 테고, 그 법을 피하기는 어려웠겠지."

스님과 대화중 상좌스님이 차를 들여왔다. 그곳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차 맛이 어떠신가?"
"예, 아주 좋습니다."

참선만하면 말을 제대로 경전만 읽으 마음이 움직

"차가 무슨 맛이 있냐 잘못 마신 게지" 무심코 한 인사말이었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다. 차를 잘못 마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행동 다르면 부처님 파는일 좋은 말도 실천않으면 소용없어

었다. 그러나 스님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출가를 했어요. 토굴에서 수행을 했는데, 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 그런데 형이 집에 갔다 놓은 불교서적을 우연히 접하면서 어느 순간간에 부처님 철학을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까?"
"무미(無味) 차가 진짜 차지. 물이 어디 맛이 있냐. 무미는 만물의 근본이지. 무미조차 알지 못해서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진리비동(眞理非動)인(眞理非動 實相難言)이라 했어. 진리는 움직이지 않고 실상은 말이 없다는 뜻이지. 내뱉는 말이 모두 상(相)이듯, 맛도 그러한 것이야. 사람들은 늘 현

법은 아득한 과거와 현재를 거쳐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

니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두 사람의 석존'의 1인화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 즉 미혹한 사람들은 아버지(적문의 석존)의 사망에 의해 미혹에서 깨어나 비로소 아버지(본문의 석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와 아들의 비유'는 적문의 아버지와 본문의 아버지를 동일 인격으로 본다. 교리 상으로는 사(舍)와 이(伊)의 두 사람의 석존으로 나누어 설하지만 궁극에는 사와 이의 석존을 한 분의 석존으로 신봉하는 이지불이(眞智不二)의 부처님이다. 법을 설하는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하고 성불한 보신의 석존이며, 법을 설하는 마음은 법신의 부처님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대목은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즉 부활은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잠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린 것은 적문의 석존의 사망을 뜻하지만 적문의 석존에 깃들여 있는 깨달음의 진실, 즉 본문의 석존(법신)은 불멸인 것이다. 앞의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서 부처님을 뵈게 되었

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신의 부처님, 즉 본불도 석가모니불이요, 법을 설하는 보신불도 석가모니요, 응신불도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이며 단지 그 수명이 아미타라는 것이다. 3즉(三即)→이요 1즉(一即)은 바로 법신에는 보신과 응신이 구족되어 있고 응신에는 법신과 보신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화경>이 일승(一乘) 사상에 일관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삼승(三乘)을 일승으로 귀일시킨 것이 아니라 만법(萬法) 동귀(同歸)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든 회교이든 유교이든 도교이든 이 세상의 어떤 종교 및 어떤 사상이든 이를 통일하는 사상이 <법화경>이요, '묘법(妙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묘법에서 보면 예수이든 공자이든 마호메트이든 모두가 법신불의 화현인 것이다. 아! 나는 이토록 영원한 생명(아미타유스)의 소유자임을 알았도다. 이 어찌 기쁘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춤이라도 한 번 댈 실 수야나 보세. 그러.

■무של정사 조실

"우리 아이 핸드폰에 수능시험 때까지 기도 메시지 매일 뜬다."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기를 부처님께 애탁해 기원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공부에 너무 바쁜 수험생 자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조차 표현하기 어려우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같은 애뜻한 마음을 저희들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을 택의 자녀 핸드폰에 108회(매일 하루 3차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세대인 택의 수험생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 부처님의 가피로 든든함을 느낄 것 입니다. 지금 연락주시요.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 핸드폰 발송 서비스

- 행사일정 : 2002년 10월 1일 - 2002년 11월 5일(36일간)
- 행사방법 : 하루 3회 수험생의 휴대폰에 축원문 발송(총 108회)
- 축원시간 : 오전 6시 / 정오 / 오후 6시
- 축원내용 : 시험무사성취와 합격기원문

성취 기도문은 신청 불자의 원찰 주지스님께서 주신 내용과 경전 속에 담긴 수능 성취에 관련된 부처님 말씀

- 동참문의 : (주)지도리 (02-725-9787)
- 접수기간 : 9월 1일 - 9월 28일
- 동 참 비 : 30,000원

※ 본 서비스를 통해 조성된 동참금의 일부는 스님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의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